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5 NO. 2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 1978



(장기: Korean Chess game)

◦ 한국 코랄  
◦ 예술 협회  
공동 주관

## 민족 예술제, 3월 18일 오후 2시

3.1절 경축 및 시아틀 총영사관 개설을 축하하는 「민족 예술제」가 열립니다. 한국 코랄(한인 합창단)과 예술 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인회와 학생회가 후원하는 이 예술제는 3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와싱턴 대학교 내 HuB hall 강당 아래층에서 있게 되는데 이날은 한국 코랄의 한국 가곡 및 성가 합창과 소프라노 김 미경씨의 우리 가곡 독창, 그리고 아중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술 협회의 고전 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 한인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예술제」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술제가 끝나고, 5시 부터는 축하 파티가 있을 예정이오니 교포 누구나 참석 하셔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모두 무료입니다.

한국 코랄·예술 협회 공동 주관

한인회·학생회 후원

# 씨아틀 한인 학교 개설. (4월 1일 개교)

교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씨아틀 한인회에서는 작년 부터 계획해 오던 한인 학교를 금년 4월 1일 부터 개설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월 3일, 임원회에서는 한인 학교 개설 준비위원 5명을 선정 하였으며 이 준비 위원회에서는 2월 11일 모임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미국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글과 한국 말을 낱이 있어 가고 있으며, 조국의 문화 예술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뜻 있는 부모들은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고, 쓰고 읽을 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한글을 잊어 버리고, 한국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느 때인가는 부모들과의 대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이 우 중에는 언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부모들의 사고 방식과 미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사고 방법과의 차이는 낱이 거리가 생기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를 해소 시키고 조국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 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한국의 언어 문화를 계승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왔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앞날을 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인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신청서에 쓰셔서 한인회 P. O. Box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말(토요일)에 3시간씩 가르칠 예정이며, 여름 방학 기간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교사진은 한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현재 미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들로 구성 될

예정 입니다. 교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보수로 봉사 할 것입니다. 교과목은 기본적인 것이며 각 아동들의 정도에 맞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 할 것입니다. 주입식이 아닌 대화 형식과 실생활을 중심으로 지도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 하셔서 입학 원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명칭..... 씨아틀 한인 학교
- 대상..... 국민학교 학생(1학년 ~ 6학년)
- 개교..... 1978년 4월 1일
- 장소..... 씨아틀 중간 지역(추후 발표)
- 과목..... 한글, 역사, 음악, 미술, 무용, 태권도.
- 시간..... 매주 토요일  
9시 30분 ~ 12시 30분(3시간)
- 교사진..... 오랜 경험 있는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
- 수업료..... 무료
- 입학 원서 접수 마감..... 1978년 3월 15일
- 보낼 곳: Seattle WA.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문의 전화: 624-7604. 624-7607.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웁시다**

## (씨아틀 한인 학교) 입학 원서

\* 이 양식을 오려서 보낸 뒤 보내주세요.

학 생 이 름	한 글		남	한국에서학년	생 년 월 일
	영 문		여	현재학년	
주 소					
학 부 형 름	한 글		전 화		
	영 문				
학 생 의 특 기 · 취 미					
기 타 요 망 사 항					

위와 같이 입학 원서를 제출 합니다.

1978년 월 일 보호자 \_\_\_\_\_  
Signature

## 한국 코랄(한인 합창단) 단원 모집

씨아틀·타코마 지역 합창 애호가들로 구성된 한국 코랄(단장: 김 종원 박사)에서는 3·18 일 민족 예술 제전과 8·15 경축 음악회를 앞두고 현재 약간명의 단원을 모집중이라고 한다. 현재 각 교회 성가대 중심 멤버들로 조직된 이 합창단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별로 약간명씩 증원 한다고 한다. 주로 한국 가곡과 성가를 부르게 되는 이 합창단은 이미 미국 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연주, 절찬을 받은바 있으며 금년 초반에 4곳에서 초청이 있다고 한다. 한국 코랄은 작년 6월에 조직 되었으며, 미국 사회에 한국을 심어주는 민간 외교의 구실도 하고 있다. 매월 2회(첫째, 셋째 토요일 밤 7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며 단원 친목도 도모한다고 한다. 합창에 취미와 관심이 있는 교포들은 다음으로 연락 하면 된다.

(연락처) 씨아틀... 255-0211 타코마... 472-1667  
622-9559

## 회장 칼럼

○ 한인회 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한 실적을 이 회보에 보고 하오니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센터를 맡아 보시던 이 수호씨가 다른 곳에 직장을 얻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이 수호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생 자리가 공석이 됨으로 이 자리를 맡아서 수고 하실분은 이력서를 곧 한인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봉사센터에서 Counselor로 수고 하시던 하지나씨도 3월 경에 다른 곳에 직장을 얻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장 알선, 상담 등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이 두 자리가 공석이 되어 이력서를 접수 하오니 한인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두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광고 해 줄 것을 부탁 하였습니다. 이 두 직장은 연방 정부 CETA 자금으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 무직이고 또 가족 수입이 낮은 분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 임시 직장이며 영구성이 없습니다. 이점을 참조 하셔서 영문 이력서와 가족 수입, 직무상대를 명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채용이 되지 못하면 다음 기회 때 고려 하겠습니다.

○ 운전 면허 시험과 책자를 우리 말로 번역해서 지금 주정부에 제출 했습니다. 번역에 수고 하신 박 건홍씨, 권 영길씨, 편집에 이 수호씨께 감사 드립니다. 곧 출판을 해서 와싱턴주 전체 한인 단체에 분배 할 계획이오니 출판 비용을 충당 하는데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년에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한인 학교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임원으로 구성된 교육 위원회에서 이 회보를 통해 알려갓 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 안내

### 무료 영어 공부

King County 거주자에 한해서 미국인으로 부터 무료로 영어 회화 및 읽기, 쓰기를 배우기 희망 하시는 분은 3월 10일 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 수에 따라서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하루 2시간 씩 교습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인 교사는 Washington State Literacy 에서 파견 나올 것입니다. 아래의 용지를 오려서 우송해 주십시오.

보낼 주소: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					
원하는 공부 시간	오전	시	오후	시	

\* 문의 전화: 624-7604. 624-7607

### 한국식품 중앙식품

- 선물 용품. 생필품 일체.
- 친절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한국인의 정.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주소: 9641-15th Ave. S.W. Sea.wa. 화이트센터 중심가에 있음.
- 전화: 762-5620

## 한인 봉사 센터를 이용 하십시오

○ 이미 교민 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한인 봉사센터는 작년 7월에 일을 시작하며 그동안 많은 교포들의 편의를 보아 드렸으며 직장 알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봉사센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교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한인 봉사센터는 교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개설된 기관입니다.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사오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급하는 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알선
- 통역 · 번역
- 가정 문제 상담
- 법적인 문제 상담 및 안내
- 병원 관계 안내
- 한인 상호간의 연락
- 이민족 문제 안내

근무 시간: 오전 8시반 ~ 오후 5시  
전화: 624-7604 624-7607.

## 운전 안내책자 출판을 위한 교포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한국어로 번역된 운전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하여 교민 여러분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 되면 운전 면허 시험을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에는 번역 및 출판 비용이 없습니다. 여러 교포들의 협조를 바라는 고충을 이해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을 오려서 수표와 함께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글 운전 안내 책자 출판을 위한 기부금	
이름	전화
\$ _____	

## 김형진 회장, 시애틀 시장을 방문

○ 시애틀 · 와싱턴주 한인회장 김형진씨는 28일 밤 시애틀 시장을 방문 모담 하였다. 각국 대표들과의 면담이 있는 뒤, 김 회장은 별도로 만남을 갖고 한인 사회를 위한 자금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노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과, 2명의 직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 하였다고 한다.

## 박영권, 이영호, 허천씨 브레이크 장치 수리업 시작

○ 박영권, 이영호, 허천씨는 지난 주말 부터 브레이크 장치 수리업을 시작 하였다고 한다. 주말에 현장 출장 하여 수리 한다고 하며 전화는 다음과 같다.

542-4528. 542-7138

## 방문객

○ 최구원씨  
서울 상업은행에 근무 하는 최구원씨는 3개월 간 은행 업무 수련차 도미, 현재 Rainier 은행에서 교육중이라 한다.

## 「미국의 이민 입국법」 출판

○ 이민 · 방문객 및 유학생을 위한 「미국의 이민입국법」 책자가 우리 교포의 번역으로 출판 되었다. 박 건홍씨와 신 호범씨가 공동 번역한 이 책은 교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난 1월에 출판된 이 책에는 이민에 관한 모든 법규와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번역자 박 건홍씨는 교포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책을 한인회에 비치하여 무료로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 하였다. 필요한 교포들은 한인회 사무실 (624-7604 · 624-7607) 이나 박 건홍씨 (322-0203) 께 연락 하면 된다.

# News 뉴스

## \* 씨아틀 총영사관 사무실 이전

씨아틀 한국 총영사관은 얼마전 사무실을 이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영사관에서는 4월 3일 부터 여권 업무를 비롯하여 기타 영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리라고 한다. 새 주소는 다음과 같다.

United Airlines Building  
2033 6th Ave.  
Seattle wa. 98102

전화: 682-0132

## \* 토요 축구회, 3월 부터 활동

우기로 인하여 그 동안 활동을 중단 하였던 토요 축구회는 3월 초순 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 할 것이라고 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친목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U.W.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온 토요 축구회는 올해에는 더욱 활기 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 축구회에 관심이 있는 교포들은 주무인 이 신남씨(362-5714)와 코치인 허 천씨(624-9442)에 연락 하면 된다.

## \* 한국 코랄, 정기 총회

2월 18일 한국 코랄(한인 합창단)은 정기 총회를 가지고 임원 개선을 하였다고 한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김 종원 박사
- 기획 - 이 학유
- 회계 - 김 혜경
- 소프라노 파트장 - 김 미경
- 테너 - 윤 미영
- 지휘 - 이 수호
- 총무 - 박 상문
- 서기 - 김 명환
- 발성지도 - 김 미경
- 알토 - 김 순자
- 베이스 - 이 학유
- 교문 - 이 창희 선생 (재정 이사 겸임)
- 재정 이사
- 이 선복 선생
- 오 희근 박사
- 오 덕주 박사

## \* 윤학덕 태권도장 개관식 성료

2월 17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U.W. 앞에 있는 윤학덕 태권도장은 개관식을 가졌다고 한다. 약 200명의 교포들이 참석한 이 개관식에서는 태권도 영화가 상영 되었으며 시범 대회가 있은 후 댄스 파티가 있었다고 한다.

## \* 중앙일보, '우리교회 자랑' 원고 접수

중앙일보 씨아틀, 타코마 지국은 각 교회를 소개 하는 난을 마련하고 '우리 교회 자랑'이란 제목으로 원고를 접수하여 지상에 소개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적당한 분량의 원고를 중앙일보 씨아틀 지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전화: 씨아틀-235-4346. 타코마-588-1434.

## \* 한글로 운전면허 시험을.....

자동차 운전 관련 안내 책자 번역과 운전 면허 시험 문제 번역을 끝낸 한인회에서는 주정부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역한 것을 주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 검토가 끝나서 한인회로 넘어오면 곧 책자를 인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포들께서는 한인회로 연락 하셔서 한글로 된 책으로 운전 면허 공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글로 된 시험지로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 '78년도 한인 주소록

그 동안 광범위한 주소 수집을 위하여 발간을 늦추어 왔던 와싱턴주 한인 주소록이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쇄 단계에 들어간 이 주소록에는 1437명의 교포 명단과 전화, 주소가 수록 되었습니다. 3월 10일경,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선 작년도 한인 회비 혹은 기부금 납부자에게는 무료로 배부 될 것입니다. 한인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민족 예술 제전」 축하 파티

- 민족 예술제전을 후원하고 있는 씨아틀, 와싱턴주 한인회와 와싱턴주 학생회는 이 예술제를 마친후 오후 5시부터 축하 파티를 베풀었다고 한다. 「민족 예술 제」는 3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시작 되며 5시 부터는 파티가 있을 예정인데 교포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회비는 무료이다. 많은 교포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파티 장소는 예술제가 있는 장소와는 약간 다른 데 같은 U.W 대학교 캠퍼스안에 있다. 파티 장소는 다음과 같다. 와싱턴 대학교 내

Ethnic Cultural Center  
Land hall 앞  
Brooklyn Ave.

## 3.1절 기념식

-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후 7시 부터 씨아틀 총영사관 사무실에서 거행 되었다. 총영사관, 한인회 공동 주최로 거행된 이 기념식에는 씨아틀 한인회 임원, 타코마 한인회 임원, 및 다수의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씨아틀, 타코마 한인회 임원들 한자리에.....**

- 2월 25일, 타코마 한인회 초청으로 씨아틀 한인회 임원들과 타코마 한인회 임원들이 페킹 식당에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날 밤 양측 임원 약 20명은 한인 사회의 여러가지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협조 하여 교포들을 돕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이 한인회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친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한인사회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

## ○ 이 신남씨, 자동차 딜러 세일즈맨

이 신남씨는 얼마전 자동차 딜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각종 중고차와 새차(세보레)를 취급 한다고 하며, 차를 팔, 사람과 살 사람들을 위하여 싸 값으로 소개 한다고 한다. 특히 질이 좋은 중고차를 싸게 알선 한다고 하며 정확하게 감정해 줄것이라고 한다. 교포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주소: 12051 Lake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전화: (H) 362-5714 (B) 362-2000

## ○ 이 창희 선생, 봉사센터 방문

이 창희 선생은 얼마전 봉사센터를 방문 하시고 기부금 200불을 전하고 가셨다.

# 교회 소식

## — 씨아틀 한인 장로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부흥회 —

-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씨아틀 한인 장로교회(안 성진 목사)에서는 기념 부흥회를 갖는다고 한다. 강사는 서울 노량진 장로 교회에 시무하시는 임 인식 목사라고 하며 기간은 3월 8일 부터 12일 까지 5일 간이라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 —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 겨울 심령 수양회 —

- 씨아틀 한인 침례교회(정 하경 목사)에서는 2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OLYMPIC MT.에서 심령 수양회를 갖는데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출발은 18일 아침 7시 정각에 교회에 모여 떠난다고 한다.

**KOREA CENTER MARKET**

612 6th AVE. S.  
SEATTLE WASH.  
98104

682-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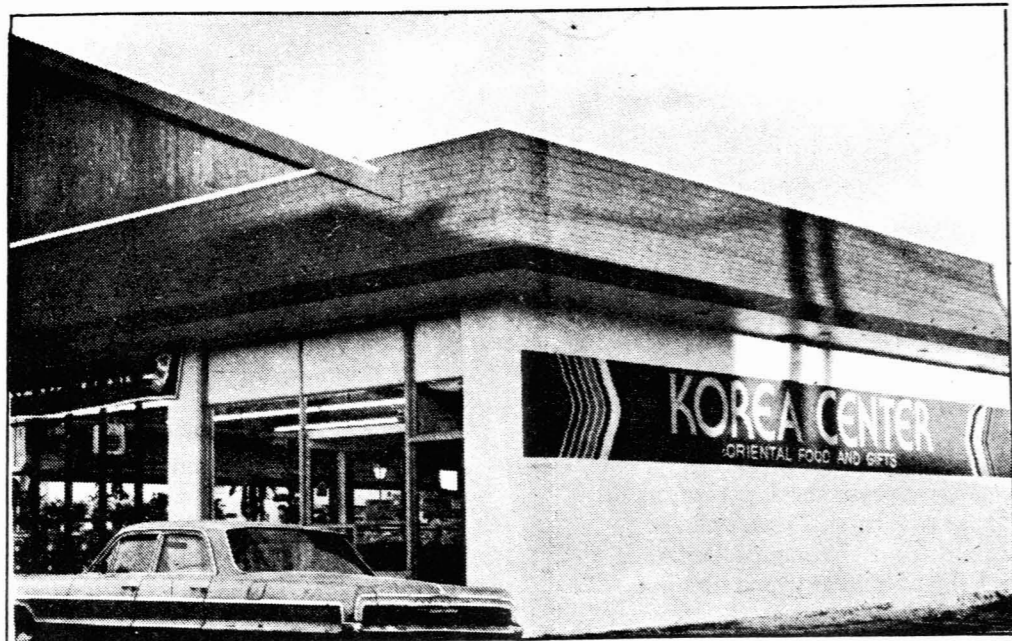
**할인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왜 특별대매출?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21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와싱턴 주의 유일한 한국 대카모 종합마켓인 KOREA CENTER가  
탄생, 오는 3월 18 로써 꼭 100일째 맞는 날입니다.

코제는 3.1절 기념. 작제는 본 코리아센터의 백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할인 특별대매출을 마련 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바라오며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리아 센터 -



**생선류**

- \* 조기 ..... \$1.29/LB
- \* 갈치 ..... \$1.29/LB
- \* 물오징어 ..... \$1.29/LB



**마른 어류**

- \* 멸치 (大) 3 OZ ... \$1.09
- \* 멸치 (中) 3 OZ ... \$1.09
- \* 멸치 (小) 3 OZ ... \$1.09



**채소, 과일류**

- \* 오렌지 ..... \$0.19/LB
- \* 파 ..... \$0.19/단
- \* 콩나물 ..... \$0.39/LB
- \* 숙주나물 ..... \$0.39/LB

**Festal®**  
DIGESTIVE AID  
**웨 스탈**

작용 :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창자내 개  
스를 조절해 편안하  
게 함.

100정 \$ 9.39

**코리아 센터에는 매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CUT LINE

\$1	\$10	\$10	\$10	\$10	\$10	\$10	\$1
\$1	100 club						\$1
\$1	3월						\$1
\$1	사은 상품권						\$1
\$1	\$5	\$5	\$5	\$5	\$5	\$1	\$1

CUT LINE

- 월간 \$100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셨을 때는 1갤론들이 진국간장 (大) 2통을 무료로 드립니다.
- 코리아 센터에 오실 때는 사은 상품권을 지참 하셔서 계산 하실 때 구입액에 대한 확인을 표해 받으십시오.
- \$100 어치 구입은 꼭 3월 달에 한하며 이표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을 오래서, 가지고 오십시오.

(논단)

# 애국의 생활

## 이 형상

‘애국의 생활’이란 논제에 무슨 거창한 강의나 저명 정치 신조를 피력 할 것으로 착각코 큰 기대라도 가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교포 모두가 현재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열을 더할것으로 보아짐을 평범한 한 교포가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사색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애국을 하고 있다’ 말인가? ‘우스운 잡꼬대의 말이나?’ 할지 모르나 우리 모두가 작전 크건, 들어나건 안 들어나건, 의식적이건 무의식 중이건,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대한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고 본다. 대중 앞에 의젓이 나서서 ‘내가 애국자다. 내가 제일 애국하겠다.’ 고성방담하던 지난 세기의 수다한 인물들이 과연 애국자였는가? 아니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실된 애국자가 될 수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생활에서 몇가지 애국의 생활을 간추려 보겠다. 본인이 처음 미국에 와서 North 에 사는 평범한 한 교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며 깜짝 놀랐다. 맞은편 벽에 걸린 조그만 족자!

‘겨레여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내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 뿐,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 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7.5조 민요조가 주는 친근감의 형식면이나 작가나 우리 시단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가만히 감상하며 얼마나 값진 비용의 시냐? 내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까지 너 조국을 찬미 하겠다는 이 시! 이 시를 외며 생각하는 교포, 또한 외래객에게 조국 인식을 심어주는 생활…… 다음, 70~80여 새 역사 창조에의 남 주인공들이 주야 분투하는 모 큰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 할 때였다. 두려움과

경의를 금할수가 없었고, 조그만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찼었다. 세계 각국의 인종이 뒤섞여 일을 하는 경쟁의 장, 여기에 지치지 않는 하얀 페인트로 큼직하게 씌워진 글씨!

‘조국을 잃은 자여 가장 불행한 자이니라.’

이 누가 한 말이며 누가 언제 여기에 썼단 말일까? 더구나 찬란한 문화 민족의 한글로 썼으니 말이다. 내 조국 대한 민족아! 영원히, 영원토록 빛날 지어다. 다음, 30~40여 우리 배탈의 어머니, 유수와 인종을 자랑하는 백의 민족의 여성들이 일한다는 모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며, 1년여전의 일하기에 누구나가 기억에서 더듬을수 있으리라 ‘김치 회사’ 라고들 까지 했다가이 또한 의미심장한 말이다. 점심 시간마다 그 독특한 김치냄새로 머리를 돌린 다른 일꾼 때문에 말성을 빚었더니 이 얼마나 떼떽하고 자랑스런 일인가? 반만년 우리 역사와 함께 우리의 어머니로 부러 익혀 온 식생활의 상징 ‘김치!’ ‘동방의 등불 대한 민족!’이라고 찬미 했던 인도의 저명 시인의 식켜처럼 찬란한 문화 민족의 역사를 또한 대변한 생활이 아닌가? 또한 좀 먼 곳에 있었던 일인가? 77년 5월, 비행기로만 7시간 반을 나른 열음의 나라 알래스카 에스키모의 촌락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국 여성은 참말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백조라는 한국 여자 한 사람 있습니다’고 하는 에스키모의 말, 그 촌락의 에스키모 아닌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이 백조 아가씨를 흠모한다고 했다. 마침 하와이로 휴가 가서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물론 아름다운 여자였으리라. 그러나 본인의 머리 속에 떠오른 영상은 외형의 육체적 미가 아니요, 내적 심적 미가 떠올라 더욱 기뻐다. 외적, 육체적 미의 평가 척도야 민족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성실한 생활, 친절과 봉사로 나이팅게일의 생활을 하는 백조, 말은바 직분에 게을리 하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인가? 또한 자랑스런 일인가? 우리 모두가 한결 같이 ‘성실한 Korean, 진실된 Korean 이 되어’ ‘이 일은 Korean에게 맡기고 싶다, Korean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동경하는 주위로 변하고 있으니

비록 입으로 떠들지 않더라도 그네들과 친근해 지고 있으며 또한 인정의 도가 깊어지고 있지 않는가? 실로 교포 모두가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세계 상품시장인 K. mart나 Sears, Bon. 여기를 둘러본 내 동포로서 의젓해 하고 민족의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양적 면에서 4분의 1을 차지한 상품이 허다하다면 지나칠까? 질적 우수성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당신 어느나라 사람이요?’ 하면 서슴없이 ‘한국 사람’이라 하지 않는가? 실로 당신들 머리 속엔, 당신들의 고동치는 심장의 뒷속엔 뜨거운 겨레 의식, 조국애가 넘치고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또한 애국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음이 사실인 증거요, 조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생활인민의 산 증거인 것이다. 땅속 깊이 뿌리 박아 동요 않고 무성하는 초목 같이…… 이상 몇 가지를 미루어 우리 모두가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애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앞날 희망은 큰 것이며 밝은 것이기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작년 6월초의 일로 생각된다. 어려운 교포 생활상과 장차 주인공의 2세 문제들, 조그맣게나마 각하게 탄원 올린 일이 있었다. 물론 이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포들을 위해 영사를 보내 주신 각하게 우리 교포 모두가 감사를 표하며 따라서 우리들도 좀 더 성의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 워싱턴의 푸른 하늘 높이 너 조국의 태극기가 휘날릴수 있게 해주신 각하게 감사하며 ‘나라가 무엇을 허 줄 것인가 바라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어려운 우리 생활 속에 발 벗고 다가서서 따스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영사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인식코, 정부와의 대화, 대학에의 광장을 늘 가져야 할 것이다. 항상 친근감을 갖는 너와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보수로 너 일은 뒤로 미루고 너 동포를 위해 동으로 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우리 한인회! 무엇이든 멀리서 열핏 봄으로서 그릇 판단, 오해를 빚게 되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숨

소리를 들어봄으로서 진상을 인식,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어로 치를 자동차 운전 면허 안배 책자와 시험 문제 번역 인쇄에 까지 이르는 우리 한인회, 자녀들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학교 개설을 추진중인가 하면 교포 학생 장학금 마련 위해 그 노고가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서로 닦아서 손 맞잡고 의논하고 협조하고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어야겠다. 좀 더 시끄럽고 말쑥 많은 한인회가 되어야겠다. ‘당신은 임원이고, 나는 회원이다’고 구별 짓지 말고 ‘내가 바로 너 동포를 위한 임원이다’고 생각, 실천에 앞장 서야겠다. 어렵고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요, 서로 이해 하고 협조하고 밀어주는 일을 계속 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 역사 창조에의 의젓한 기수가 되는 것이다. 어려움에 도전하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요, 어둠속에 길을 밝혀주는 등대수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이상, 지면 관계로 더 간추리지 않고 끝맺어야겠다. 끝으로 다짐하고 싶음은 우리 모두가 제일 선에 나선 너 조국의 자랑스런 외교가요, 애국자임을 재인식 하자는 것이다. 날로 선진국으로 조약하고 있는 너 조국의 국위 선양의 길이 바로 평범한 나의 생활속에 있음을 알고 근면과 성실, 신뢰와 봉사의 열을 더하자는 것이다. 이 길이 바로 너 조국 대한 민족을 위한 애국에의 길이요, 너 부모 형제, 자손을 위한 자랑스런 삶의 길인 것이다.

### 국제지역 탁아소 안내

- 본 탁아소는 4월 부터 개원 합니다.
- 연령: 1살 ~ 5살 이하
- 월 ~ 금 (6:30 ~ 5:30 P.M)
- 현재 접수중 입니다.
- 장소: 627 S. Jackson  
Seattle WA. 98104
- 연락처: 624-7604·7607

(미국인을 위한 안내)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PERFORMANCE REPORT FOR A PERIOD  
FROM JULY 19, TO JANUARY 31, 1978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wo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and the other, Counselor,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c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s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Since the Service Center's operation from July 19, 1977 the follow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 1) Job Developing - - - Employer visits - - - - 211 cases  
(직장 개발) on the phone - - - - -526 cases
- 2) Employment Counseling and Referrals - - - - -553 cases  
(직장 상담)
- 3) Job Placement - - - - - 45 persons  
(직장 알선) Providing Rides - - - - -51 persons  
Helping Writing Applications - - -48 persons  
Helping Interviewing - - 53 persons
- 4)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 - - - - - 23 persons  
(주택 안내)
- 5) Domestic Problem and Consulting - - in person 376 cases  
(가정 문제 상담) on the phone 497 cases
- 6) Referrals of Legal Services - - - - - -145 cases  
(법률 문제 안내)
- 7) General Consulting - - - - - - - 619 cases  
(일반 상담)
- 8) General Office Work - - - - - - - -As needed  
(일반 사무)
- 9)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 - - - - - 15 to 20  
(전화 문의) a day
- 10) Interpretations and Translations- in person- - 229 cases  
(통역·번역) on the phone-576 cases
- 11) Programming Korean Community Annual Activities.  
(연례 행사)
- 12) Publishing Korean Monthly News Letter.  
(월간 소식지)
- 13) Translation of Driver's Manual and Driver's Examinations.  
(운전 면허 안내서, 시험문제 번역)
- 14) Publishing Korean Directory Yearly.  
(주소록 발간)
- 15) Seminars Every Two Month.  
(세미나)
- 16) Coordin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기타 단체와의 연락)

詩

해여, 조국의 해여

박 명성

북미 대륙에 3년  
구라파에 3년

조국의 해를 못 보는  
복역수로 살다 보니  
가득이나 근시인 눈에  
잘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자주 흐린 하늘 아래  
부슬비 듣고,  
피어 오르는 안개 속에  
전설처럼 도사린 고성(古城)은 있어도,

조국의 해 없는 곳에서  
나는 언제나 불쌍한 나그네일 수 밖에  
고아일 수 밖에.....

해여, 조국의 해여!

영예롭고 찬란하고 자유로워도  
절제하고 육성하고 또 포용하는 해여!

네 품에서 나는 사물(事物)을 본다.  
네 품에서 사랑 받고 사랑을 주고,  
절망하고 다시 희망한다.  
네 품에서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 춘다.

해여, 조국의 해여!

어서 내 수의(囚衣)를 찢어다오,  
그리고 푸르디 푸른 조국의 하늘로  
발가숭이 내 알몸을 데려다가  
네 빛속에 잠기게 해다오.  
눈부신 빛의 포망(捕網)에  
아주 나를 얽어서  
다시는 나들이도 못나가게  
잡아다오, 붙잡아다오.

김 여사께 드리는 글

보내 주신 편지와 두 편의 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정원을 가꾸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김 여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글에 나타난 뜻으로보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느라 무척 고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만 미천한 나의 머리로서는 시원한 회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생이란 그리 즐겁기만 한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괴롭기만 한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 위에 잠시 왔다가 살아져 가는 외로운 나그네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오늘 보다는 더 찬란한 버릴의 꿈을 키우면서 따스한 인정으로 지내는 것이 최선의 길인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변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과 또한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사를 슬프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슬퍼 할수 있다는 것은 깊은 가슴으로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영겁의 세월 위에 우리의 일생은 표현 할 길이 없으며, 수많은 별들의 우주 공간에서 한 개의 모래알이나 비교 할수 있는 지구라 할까요? 그러한 지구위에 살고있는 바 한몸을 어떻게 표현 할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스쳐가는 순간적인 유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수 있을 뿐입니다. 한 마리의 날짐승이나 한 그루의 푸른 나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넓은 가슴과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달픈 나그네 길이지만 이 길은 가야 하며, 참고 견디면서 환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운전을 배워서 파란 차를 몰고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인생과 시를 이야기 하기엔 그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와 시에 대한 회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생각 나는 몇자를 적어 보았습니다. 김 여사와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5일 이 수호 드림

中央日報



중앙일보는  
정성들여 만드는  
가정의 신문입니다.

Seattle: (206) 235-4346

Tacoma: (206) 588-1434

SEATTLE-TACOMA OFFICE  
10411 S.E. 174TH - No. 3236  
RENTON, WASH. 98055

WR **워싱턴 부동산회사**  
510 TERMINAL SALES BUILDING • 1912 1ST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1

한 병 용

(PHILIP B. AHN, BROKER)

Office 622-4120

씨아틀 838-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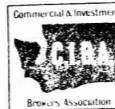
마코마 927-7778

박 열 민

(Mike Y. Park)

Off: 622-4120/Res:838-4339

남서지역 | 북부지역 | 상업·투자 | 타코마



MLS

부동산·투자·상담·재산관리·보험·무료상담.

😊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강 현 중 부동산** 여사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공사 이자를 대신 배드리노.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배드리노.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
  -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7112

헨 리 장 여행사  
Henry Chang Travel Service

국제 국내항공권 취급  
이 민 상 담  
재정보증서 작성

Tel. (206) 523-7057

9002 12th Ave. N. E.  
Seattle Wash. 98115

###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씨아틀·워싱턴주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 합니다. 회보 발간과 사무실 유지비·기타 등에 적지않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교포들께서 보배 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오늘날 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 하셔서 관심 있는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는 1년 분이 한 가정에 \$10 이상 입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 하시고 「회비」 「기부금」을 구별하여 명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을 오려서 함께 보내십시오.

이름	전화
회 비	기 부 금
\$	\$

\* 한 가지만 보내셔도 됩니다.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 투고 환영

한인 회보는 약 1500부 발송 되고 있습니다. 교포들께서 보내시는 원고는 성의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매월 15일 까지 한인회 P.O. Box.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포 사회에 귀익한 생활 정보나 문예 작품, 논설, 기타 아무 내용이 나 좋습니다.

### 광고 접수

한인 회보에 광고를 내고 싶은 교포들께서는 매월 15일 이전으로 광고 의뢰를 하십시오. 개인 문제, 영업용 등 광고 원고를 만드셔서 한 인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 전화: 624-7604  
624-7607

### == 엮고 나서 ==

1년 2개월 동안 한인 회보를 엮었나 보다. 좀 더 알차고 좋은 회보를 만들어야 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재주가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이 정도의 회보가 되고 말았다. 훌륭한 회보를 기다리는 교포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한인회 편집인의 자리는 떠나지만 계속 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뒤에서 도울수 있겠지... 한인 사회가 나날이 발전 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좋은 원고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인쇄와 발송에 있어서 여러편으로 도와 주신 김길량씨께 감사 드립니다. 인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에게 변변한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죄송한 인사를 드립니다. 다정한 친구들과 이제는 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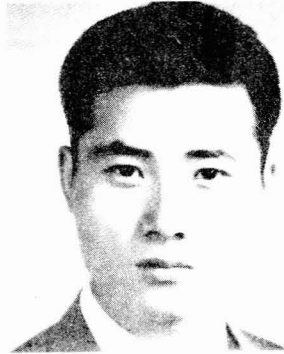
- 수 호 -

# 이 규 영 계 리 사

## Income Tax 라면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기로 약속하는  
저를 불러 주십시오!

- 중소기업 장부 정리
- 일반 인컴 택스
- 세무 상담
- 퇴직 연금 상담
- 기밀 절대 보장



### SEATTLE OFFICE:

1928 - 2nd Ave. Seattle, WA 98101  
(206) 623-9290 or 322-3782 (24Hrs.)

### TACOMA OFFICE:

6415 Steilacoom Blvd. S. W.  
Tacoma, Wash. 98499  
(206) 588-0333  
Wed. Sat.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2월 말 현재

4. 이 동림 ..... 10불
5. 김 청작 ..... 20불
6. 이 창희 ..... 20불
7. 황 병주 ..... 10불
8. 김 Mary ..... 10불
9. 차리나 ..... 10불

## 기부금 납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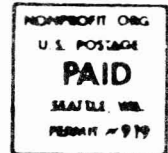
14. 이 창희 ..... 200불

## 운전책자 출판. 기부금

- 천 동기 ..... 40 불

## 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505 000003145  
HAHN, MAN S  
12904 SE 45TH LANE  
WA  
BELLEVUE

98006